

2017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⑥	7	⑦	8	⑧	9	⑨	10	⑩
11	⑪	12	⑫	13	⑬	14	⑭	15	⑮
16	⑯	17	⑰	18	⑱	19	⑲	20	⑳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내용 이해하기

시간 수축 효과의 개념을 ‘이는 심리학 용어로~현상을 말합니다.’와 같이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 ‘생리 시계 효과’와 ‘회상 효과’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마지막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며’라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피터 뎡건이 했던 실험의 결과를 ‘3분 3초, 3분 6초, 3분 40초’와 같이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 보셨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며 화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첫 번째, 4문단에서 ‘두 번째’라는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1문단의 ‘어린 학생들은 정적인 이미지를, 노인들은 동적인 이미지를 그렸’다는 내용을 통해, (가)를 그린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고, (나)를 그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의 ‘미국의 신경학자 피터 뎡건은~시계가 느려집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나)를 그린 사람이 (가)를 그린 사람에 비해 더 늦게 버튼을 누를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이런 어린 학생들과~이미지를 그렸습니다.’라고 했고, ‘저 있는 나무’가 정적인 이미지이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노년층은 새로운~적기 때문에’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노년층은 ‘노년기를 기억할 게 별로 없는 시기로 느’킨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노년층일수록 생리학적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학생 1’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시한 ‘언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은 ‘학생 2’가 잘못 이해한 것을 ‘그런 아니야’라는 말로 바로잡으며 한대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2’는 언총을 만든 것이 마을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이 ‘그렇지’라는 말로 ‘학생 2’의 말을 긍정하면서 ‘나도’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가)의 ‘마을 사람들은 상스럽고~말 무덤을 만들었어.’와 (나)의 ‘한대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 마을 속에 말 무덤을 하나씩 만들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물어 버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에서 ‘학생 2’가 인문학 기행을 다녀온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글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학생 2’가 지형을 변화시킨 내용을 글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한대 마을 사람들이 덕담과 칭찬을 나누었던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언총을 만든 다른 마을들이 언급되지 않았고, (나)에서 언총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을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내용을 글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1문단 세 번째 문장의 ‘양날의 검과 같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잘못된 표현 고쳐 쓰기

4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문맥상 인과 관계로 연결되므로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①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의 ‘되어’는 ‘되기로 하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벌미’는 ‘제앙이나 병 따위의 불행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뜻이므로 ‘일이나 사건의 첫머리’라는 뜻의 ‘실마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모양’과 ‘형상’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모양’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글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학생의 초고’에서 LOUD 캠페인의 경제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네 번째 문장에서 그러한 문제의 예로 ‘승강기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공공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문제 해결 활동’이라고 LOUD 캠페인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대중을 ‘소통과 공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LOUD 캠페인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LOUD 캠페인의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고 언급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캠페인 장소로 선정하는 것’을, 네 번째 문장에서 ‘단순한 문자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기대 효과를 언급한 것이고,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①, ②는 질문의 형식만, ④, ⑤는 기대 효과만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LOUD 캠페인은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홍보를 부차과 같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을 캠페인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단순한 문자’를 활용하면 ‘문제의 본질을 쉽고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대중을 규제나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의 대상’으로 본다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 네 번째 문장에서 ‘자발적 실천’을 통해 ‘시민 의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단어 분류 기준 이해하기

‘두’는 관형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지만, ‘하나’는 수사로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도’와 ‘만’은 조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동사로,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무’와 ‘꽃’은 명사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형용사로,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르면 받침 ‘ㄷ’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뽕뽕도’는 [뽕뽕도]로 발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따르면 ‘국밥’을 [국꺾]으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③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꺼안다’를 [꺼안따]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④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삼고’를 [삼꼬]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⑤ 표준 발음법 제26항에 따르면 ‘갈등(葛藤)’은 [갈똥]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결과(結果)’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결과]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문장 성분 파악하기

‘야호’는 독립어, ‘우리가’는 주어, ‘드디어’는 부사어, ‘힘든’은 관형어, ‘관문’은 목적어, ‘통과했어’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에는 ‘우리가’, ‘관문’, ‘통과했어’가, 부속 성분에는 ‘드디어’, ‘힘든’이, 독립 성분에는 ‘야호’가 해당되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올바른 문장 판단하기

‘할아버지께서 어제 입학 선물을 주셨다.’에서 서술어 ‘주셨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는 친구에게 보냈다.’에서 서술어 ‘보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하다.

다. ② ‘이번 일은 결코 성공해야 한다.’에서 부사어 ‘결코’는 서술어 ‘성공해야 한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③ ‘그의 뛰어난 점은 필기를 잘한다.’에서 주어 ‘그의 뛰어난 점은’은 서술어 ‘잘한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람들은 즐겁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에서 목적어 ‘춤과 노래를’은 서술어 ‘부르고 있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훈민정음 제자해 이해하기

①는 발음할 때 소리가 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⑥는 평평한 모양이지만 ④는 둥근 모양이므로 적절하다. ③ ⑦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발음하지만 ⑥는 오그라지게 해서 발음하므로 적절하다. ④ ③, ⑥, ⑦는 가운데소리 열한 자의 일부이므로 적절하다. ⑤ ⑥는 하늘을, ⑦는 땅을, ⑦는 사람을 각각 본 뜬 모양이므로 적절하다.

[인문]

[16~21] <출전> 리버먼, 『사회적 뇌』

16.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2. 3문단에서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의 서로 다른 특징을 진술하였고, 상호 간의 논쟁 내용을 진술하면서 차이점을 설명한 후 4. 5문단을 통해 두 이론을 통합하려는 리버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론-이론과 모의 이론, 그리고 리버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론들의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기존 이론의 탄생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특정한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 이론을 타당성 측면에서 우열을 가리는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아동이 켈리의 마음에 공감하였다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앤이 구슬을 상자로 옮겼다는 것을 켈리가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구슬을 상자에서 찾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켈리가 상자에서 구슬을 찾은 것이라고 답한 아동들은, 구슬의 위치에 대해 아동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켈리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적절하다. ② 아동이 타인의 마음을 인과적으로 추론한 것은 마음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것이기에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아동은 켈리가 구슬이 상자로 옮겨진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켈리가 바구니에서 구슬을 찾은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은 구슬의 위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켈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가진 아동은 구슬이 옮겨진 것을 모르는 켈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거울 체계는 심리화 체계에 선행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씨가 일요일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동료를 볼 때, 거울 체계를 통해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인 복지시설 방문에 대해 먼저 파악한

후, 심리화 체계를 통해 ‘왜’에 해당하는 내용인 그의 신념에 대해 파악하려 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A]에서 리버먼은 정서적 일치와 실천적 동기까지 형성되어야 진정한 공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슬픔을 알고 함께 느끼고 도우려는 마음까지 가진 것은 진정한 공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공감의 형성 이후의 문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타인을 도우려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타인의 정서 상태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타인을 돕지 않으려 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4문단에서 리버먼은 모의실험을 실행하는 거울 체계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갈레세도 자동적으로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모의실험은 타인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3문단에서 이론-이론은 모의실험이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모의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서 모의실험은 자신을 타인의 상황에 투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론-이론에서는 4세부터 마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22~24] <출전> 황순원, 『인간검목』

2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에는 ‘중요’와 ‘준학’간의 대화와 ‘준학’의 고개를 들고 눈을 빛내는 행위를 통해, ‘준학’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제 꿈’의 내용은 ‘제가 꾸는 꿈은~울어 버리곤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준학’은 꿈에 대해 ‘준학’에게 이야기를 한 후 ‘그때 제가 집에 있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그러나 남준학 소년과~끼어 있었다.’, ‘이 장태운 소년~모르기 때문이었다.’에서 아이들을 구별하여 참여시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상실한 공동체의 단면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준학’이 ‘밥중에 울곤’하는 모습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인한 슬픔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너만이 부모를 잃은 게 아니란다’에서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어머니’가 ‘유탄에 맞고 죽은 것에서 ‘6·25’ 전쟁의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선생님 전 요새 꿈을 안 꿬요.’와 ‘그리고 요샌~다섯 번이나 한걸요.’에서 ‘준학’이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과학]

[25~28] <출전> 강봉균 외 옮김, 『동물생리학』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혈액을 폐로 보내는 것보다 몸 전체로 보낼 때 더 강한 힘이 필요하므로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의 ‘여기서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의 ‘제3심장’은 그 소리가 약해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서만 들리며’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의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이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의 ‘만약 판막이나 혈관 등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하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추론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의 ‘이 과정에서 우심실과 좌심실은 동시에 수축됨으로써’라는 부분과 3문단의 ‘이 과정은 약 0.8 초를 주기로 하여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통해 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온 몸이나 폐로 나갈 때 동시에 나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의 심실 수축기에 대한 설명 중 ‘계속 증가해 온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되어 동맥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심장의 혈액을 몸 전체나 폐로 내보낼 때에는 동맥판막이 열려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하든,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하든 모두 동맥판막이 열림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심실 수축기는~동맥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를 말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을 통해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 폐,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 온 몸으로 내보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막, 우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동맥 판막,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막,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있는 동맥 판막을 지나야 하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심실 수축기는~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실판막은 여전히 닫혀 있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방실판막은 심방에서 심실로만 열린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4문단의 ‘이후 심실이 이완되면서 계속 감소해 온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도 낮아지면 방실판막

이 열려 심실로 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를 심실 채우기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D]에서 [E]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되어 심실로 혈액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사실에서 심실의 혈액량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이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므로 심실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의 '동맥판막이 열리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와 '혈액은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심실의 크기는 이전 시기보다 작아진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의 '전기 신호로 인한 수축 단계가 끝나고 심실이 이완되면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 동맥판막이 닫히게 된다.'와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제2심장음'이라고 한다', 5문단의 '제1심장음'과 '제2심장음'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청진기를 통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먼저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심방의 근육으로 전달되면 심방이 수축된다.'와 '이 시기에는 심방을 수축시킨 전기 신호가 방실판막과 심방 벽을 전동시켜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B]는 등용적 심실 수축기이고, [D]는 등용적 심실이 이완기이다. [B]와 [D] 시기는 모두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 있어,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이때, [B]에서의 심방, 심실, 동맥의 압력을 살펴보면, 3문단의 '심실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지므로 방실판막이 닫힌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동맥의 압력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동맥판막은 닫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동맥, 심실, 심방 순으로 압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D]에서의 심방, 심실, 동맥의 압력을 살펴보면, 4문단의 '심실이 이완되면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 동맥판막이 닫히게 된다. 그런데 심실의 압력은 심방의 압력보다 여전히 높으므로 방실판막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통해 동맥, 심실, 심방 순으로 압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시기 모두 동맥, 심실, 심방 순으로 압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시]

[29~32] <출전> 유치환, 「메화나무」
김기택, 「틈」
법정, 「설해묵」

2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의 '살래살래', (다)의 '사뿐사뿐'에서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각각 꽃봉이 흔들거리는 장면과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는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 따르면, 메화나무는 화자와 교감하는 대상이다. 또한 '매운' 바람에 '어린 꽃봉들을 머금은 가녀린 가지'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바람이 '꽃봉'을

위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한겨울 추위를 느끼고 있다고 했고, '한철 아래 까무러치듯'이 '얼어붙던' '먼 산산들'에서 화자가 느끼는 한겨울 추위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메화나무와 온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고, '아련하고도 따듯이 마음 뜰 돌던 느낌'을 '느껴왔는지 모른다'는 것에서 화자가 메화나무와 온기를 공유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메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이라 여기고 있고, '처가지들'을 보고 '내가 느껴 배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에서 화자의 정서가 메화나무로부터 '환기'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메화나무와 교감하고 있다고 느껴며 이를 통해 자기 내면의 고독을 위로 받는다. 그리고 '가녀린 가지'가 '외로움에 다쳐서는 안 된다'고 '타일르듯' 흔들거리는 것에서 화자와 메화나무의 교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비교하기

1, 2행으로 볼 때, '철근과 시멘트(㉓)'는 힘차게 꺼안고 굳은 존재이지만 그 사이에서 틈은 태어나고 돌아다닌다. 더욱이 24, 25행에서 철근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튼튼한 것은 틈에 의해 무너진다고 했으므로 강인한 삶을 이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13행에서 틈은 화려한 '타일과 벽지(㉔)'에 덮여 있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작은 존재인 '틈'은 무언가에 가려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19~20행에서 어떤 철벽이라도 비집고 들어가 사는 틈의 정체가 '가냘픈 허공(㉕)'이라고 하였고, '느리고 절긴 힘'(9행), '이 힘이 스미듯 들어가면', '튼튼한 것들은 결국 없어지고'(23~25행)에서 <보기>의 끈질긴 생명력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노승이 발을 씻으라고 학생에게 '더운 물(㉖)'을 떠다 주었을 때 더벅머리 학생은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행위는 <보기>의 거창하지는 않지만 상대를 감동시키는 힘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에서 아릅드리나무들이 가벼운 '눈(㉗)'에 의해 꺾인다고 했고, 이때 '눈'은 <보기>의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뜯은 메화나무와 관련된 자연의 섭리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바닷가는 조약돌, 물결과 관련된 자연 현상이 드러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사회]

[33~37] <출전> 이상호, 「네트워크 시장과 정보제」

3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정보제 시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변화 과정은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품과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나 디지털화될 수 있는 상품, 이 모두를 '정보제'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 및 이들을 디지털화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공급 측면에서, 정보제는 원본

의 개발에 드는 초기 고정비용은 크지만 디지털로 생산·유통되기 때문에 원본의 복제를 통한 재생산에 투입되는 추가적인 한계비용은 매우 작다는 특성'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 정보제 가격이 낮아지면, 원본을 개발·재생산하는 기업은 초기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 기업이 '정'의 제품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은 전환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 계약을 했다면 ○○ 기업은 '병'의 제품에 의해 발생한 전환비용을 낮게 느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전환비용은 '새로운 정보제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돈, 노력, 시간'이라 하였다. 따라서 ○○ 기업이 '정'의 제품을 새롭게 익혀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은 전환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병'이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요금의 할인을 제안한 것은 ○○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계속 쓰도록 유도하여 잠김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적절하다. ③ ○○ 기업에 '정'이 '병'보다 저렴한 이용 요금을 제시한 것은 이미 '병'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 기업에 나타난 잠김효과를 약화시켜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위약금과 같은 것까지도 전환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보제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사용 기간을 제한하여 그 이후에는 기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3문단에서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상품의 일부 기능만을 제공하는 전략'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하기

생산자가 a버전만을 출시할 때 6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㉓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인 80원보다 책정 가격이 낮아서, ㉔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와 책정 가격이 일치하여 a버전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㉔와 ㉕ 모두 a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생산자는 a버전의 초기 고정비용인 130원보다 낮은 12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생산자가 a버전만을 출시할 때 8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㉓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와 책정 가격이 일치하여 a버전을 구입하지만, ㉔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보다 책정 가격이 높아서 a버전을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만 a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생산자는 5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적절하다. ③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5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㉓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와 책정 가격이 일치하여 a버전을 구입하지만, ㉔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보다 책정 가격이 높아서 a버전을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만 a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생산자는 5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적절하다. ④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3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㉓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인 50원보다 책정 가격이 낮아서, ㉔는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와 책정 가격이 일치하여 b버전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㉔와 ㉕ 모두 b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생산자는 b버전의 초기 고정비용인

70원보다 낮은 6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적절하다. ⑤ 생산자가 b버전만을 출시할 때 ㉔에게는 50원, ㉕에게는 30원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㉔와 ㉕ 모두 자신의 최대 지불 의사와 책정 가격이 일치하여 b버전을 구입하게 된다. 따라서 ㉔와 ㉕ 모두 b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생산자는 b버전의 초기 고정비용인 70원보다 높은 8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는 문맥상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인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어떠한 시기가 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8~41] <출전> 권호문, 「한거십팔곡」
임제의 시조
이덕일, 「우국가」

38. [출제의도] 지문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사대부들은 ‘처’의 삶을 살면서도~자신의 본분을 지키려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3문단의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처’를 선택하기도 한 것이다.’에서 사대부들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의 ‘영달과 부귀는 고위 관직에 올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궁’은 ‘빈궁’과 ‘빈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고, ‘달’은 ‘영달’과 ‘부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출’은 ‘유교적 가르침을 부단히 수양한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 사대부로서 품었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언급되었으므로, ‘빈궁’을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아간 삶’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궁’은 ‘빈궁’과 ‘빈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이해하기

‘빈천을 사양 마라’는 ‘빈천’을 사양하지 말라는 것으로, 4~5문단을 보면 ‘빈천’은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해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대부들은 스스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출’을 거부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는 ‘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출’은 ‘사대부가 관직에 나아가~자신들의 이상으로 여긴 것이다.’라고 언급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빈궁’과 ‘빈천’은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않는 삶으로 ‘처’와 비슷한 맥락을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빈천거’는 ‘처’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오리라’에서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신명을 못느니라’는 ‘위기’인 ‘부귀’를 선택했을 때 초래할 결과를 의미한다. 4~5문단을 바탕으로 ‘부귀’는 ‘출’의 삶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 임제의 시조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A]의 종장, [B]의 초장과 종장에서 [A], [B]의 화자는 모두 ‘부귀’의 삶을 지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5문단을 바탕으로 ‘부귀’를 ‘출’로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문단에서 [A]와 [B]에는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위기라는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고립 무조’란 ‘홀로 있어 도움이 없다’는 의미로, 고립 무조의 상태에 처한 것은 화자가 아닌 ‘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궁도 시비’란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지는 것이다. 화자는 당시를, 싸우지만 할 뿐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따지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2문단을 바탕으로 당시의 시대를 정치가 순리대로 실현되지 않은 시대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는 ‘집만 돌아보고 나라 일 아니 하’는 당대의 사대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2문단을 바탕으로 ‘나라 일 아니 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유교적 가치를 바르게 실천하지 않은 사대부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관직의 유무에 따른 사대부의 처지와 그와 관련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출-달-부귀’와 ‘처-궁-빈천’이라는 대조적 맥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명’과 ‘부귀’를 바라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화자가 ‘달’의 삶을 지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는 공명과 부귀를 바라지 않으며 ‘초가 한 칸’에 있는데, 이는 4~5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바탕으로 화자가 ‘처’, ‘궁’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궁’의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 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B]에는 ‘부귀’, ‘탐’, ‘빈천’, ‘절로’ 등의 시어들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도 <제14수>에서 ‘외다’가, <제25수>에서 ‘시비’가, <제26수>에서 ‘나라’와 ‘집’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고전소설]

[42~45] <출전> 작자 미상, 「양산백전」

42.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추소저’의 마지막 말인 ‘소녀 부모께~인력으로 하올 바이리까’를 통해 전생의 인연,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추소저’는 자신이 하는 말이 정절에 마땅하다고 밝히며 ‘추상서’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고, [B]에서 ‘상서 부부’는 ‘추소저’와 ‘양산백’이 결 혼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자신

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일이 이렇게~예절을 갖추어 마주 대하니’에서 ‘양산백’은 ‘추상서’에게 ‘추소저’와의 대면을 잠시 허락받아, ‘추소저’를 보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그대 인생살이에~양인을 적강하시니라’에서 ‘상제’가 ‘추소저’와 ‘양산백’이 외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을 ⑥로 적강시킨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심상서 지극히 사랑하여~얼굴빛을 달리하며’에서 ‘추상서’가 ‘추소저’와 ‘심의량’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명을 쫓은즉~양생을 의지하리라’에서 ‘추소저’의 시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그대 인생살이에~양인을 적강하시니라’에서 ‘양산백’은 ‘황건역사’를 통해 ‘신선’과 더불어 풍경을 완성했던 ④에서의 일을 듣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소녀 부모께~인력으로 하올 바이리까’에서 ‘추소저’와 ‘양산백’이 재생하게 된 이유와 재생의 필연성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한자 성어 이해하기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절개를 잃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효가 되는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추소저’의 상황을 표현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이 적절하다. ①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금의환향(錦衣還鄕)’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옴’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일거양득(一舉兩得)’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주객전도(主客顛倒)’는 ‘주인과 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뀜’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